

88 정책동향 ...

KOVN

올해 산업기술개발에 총 5446억원 지원

정부는 올해 기업·대학·연구소의 산업기술 개발에 총 544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가 12일 통합공고한 '2003년도 산업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신제품 및 혁신기술 개발 등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450억원,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신기술 또는 원천기술의 실용화 개발 등 신기술실용화개발사업에 150억원,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 복합기술 개발 등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880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 등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에 545억원, 생산기술·전자부품기술·미래형 자동차 부품기술 개발 등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에 46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대학·연구소는 4월부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대학·연구소는 4월부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를 참조하면 된다.

IT개발사업에 895억원 투자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는 올해 차세대 정보기술(IT)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8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취약분야로 평가받은 소프트웨어분야 136억원을 비롯해 초고속 광가입자망기술 개발 159억원, 차세대 네트워크 정보보호

중기청장-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은 1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장홍순 회장 등 벤처업계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코스닥 시장의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혀 벤처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들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조조정 펀드 조성, 법규 및 세제 정비 등을 통해 벤처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 벤처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계는 이외에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대기업과 벤

처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산업기능요원 확충을 통한 벤처인력 지원과 양성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창무 청장은 "벤처활성화위원회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발 104억원, 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 개발 104억원, 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 개발 148억원, 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225억원, 고성능 인터넷서버 개발 12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차세대 IT핵심기술개발사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3년 내외인 6개 분야에 오는 2006년까지 6600억원을 투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정통부, 콘텐츠 식별체계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통한 산업육성을 위해 콘텐츠 자체에 상품 바코드와 같은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URL(Uniform Resource Locators)방식 인터넷자원 식별체계는 정확한 식별기능이 떨어져 콘텐츠 유통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RN(Uniform Resource Names)방식으로 식별체계를 표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한국전산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URN 기반의 식별 체계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추진기로 했다.

정통부는 표준식별체계가 정착되면 콘텐츠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콘텐츠 보유자 또는 유통사업자는 부여된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유통 기반을 갖추게 되는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업계동향 ☞

KOVA

<BT> '건강기능성 식품법' 대비 분주

바이오벤처기업들이 8월 건강기능성 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임상시험과 생산시스템 준비에 한창이다. 바이오기업들은 그동안 기능성 식품에 대한 효능표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광고규제를 받아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이 시행되면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고 독성이 없으면 심사를 거쳐 특정 성분에 관한 효능 표기와 광고가 허용된다. 반면 제조 및 생산 시설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IT> IT 관련업종만 상승세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 추세에도 전기·전자·통신제조업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인 신용보증 이용업체 156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증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2분기 전기·전자·통신업종의 제조업 경기전망BSI가 110으로 2분기 연속 호전이 예상됐다. 또 사무·의료·정밀기기 분야도 BSI가 117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전망은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BSI가 96으로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BSI가 100이하면 전 분기 대비 경기악화, 반대의 경우는 경기호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 소비심리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경기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산업의 경기회복과 수출증가가 기대되면서 사무·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통신제조업 경기는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산업동향 ☞

KOVA

작년 벤처업체수 23% 감소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벤처업체 수와 투자실적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의 벤처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수는 지난 99년 4934개, 2000년 8798개, 2001년 1만1392개로 매년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8778개로 집계돼 무려 23% 감소했다.

국내 벤처산업은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불어 닳던 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는 업체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결국 지난해 경기불황의 여파 및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업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기술동향 ☞

KOVA

ETRI, 테라급 光통신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4 테라(Tbps)급 파장분할다중화(WDM) 광(光)회선분배(OXC)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광회선 분배시스템은 회선분배 부문을 순수 광신호로 구축해 국가 기간망의 통신속도와 경제성을 한차원 높은 세계 정상급의 광통신 기술이라고 ETRI는 설명했다.

현재는 광 신호를 직접 제어해 원하는 경로로 분배하는 광회선분배 기술이 없어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고 전기적 방법으로 분배한 후 다시 광신호로 복원시켜 전송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거쳐야 했다. 때문에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작업동안 신호전달이 지연돼 통신효율이 떨어짐은 물론 고가의 변환장치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ETRI 광통신연구부 김광준 박사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국가 기간망을 그물형 단일 광전달망으로 구축할 수 있어 망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터넷 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